

제왕절개 남용 막을 수 없나

출산 의보수가 조정

자연분만과 큰 차 줄여야

의료사고 대책·임산부 교육 등 강화 시급

늘어나는 제왕절개 분만 이대로 좋은가? 자연분만은 과연 위험한가? 최근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제왕절개 분만율의 적정수준은 의학적으로 규명돼 있지 않다. 다만 자연분만이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에만 해야 하고 초산 때 제왕절개를 했더라도 반복수술은 피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비추어 제왕절개 분만율은 낮을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제왕절개 수술은 70년대 중반부터 전세계적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5년 사이 이상증가현상을 보여 역기능이 우려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팀은 대한예방의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한 '제왕절개 분만율의 지역간 변이와 관련요인 연구'논문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제왕절개 분만의 증가는 의료자원과 재정의 낭비를 가져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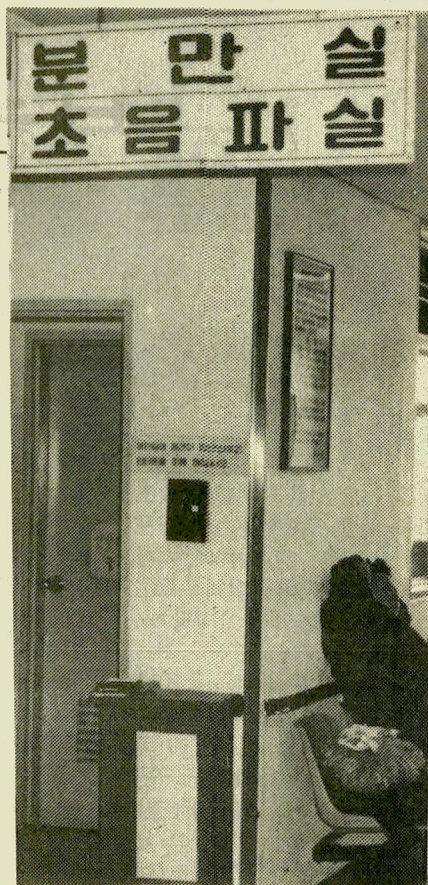
감염이나 출혈에 의한 합병증 등 모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의료보험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85년 의료보험이 청구된 전체 분만건수의 9% 수준이던 제왕절개 분만율은 90년 20%를 넘어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91년에는 이 비율이 23%까지 올라갔으며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50.1%로 가장 높고 전남이 14.6%로 가장 낮아 4.5배나 차이가 났다. 진료기관 중에서는 병원이 37.6%, 종합병원이 29.1%로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의원이 19.8%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국내 제왕절개 분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마취학이나 항생제 개발과 같은 수술기술의 발달과 함께 임신부의 고통이나 태아의 체중증가에 따른 난산 등 의학적인 필요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연분만을 기피하게 만드는 의료환경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한일병원 강영호 진료부원장팀(산부인과)은 89년부터 92년 사이 임신 41주가 지난 자연출산도 7백2명에게 제왕절개보다는 유도분만법을 적용한 결과 태아사망이 단 한건뿐이었다고 밝혀 제왕절개 수술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전문가들은 제왕절개수술 분만율을 줄이려면 우선 자연분만보다 턱없이 높은 의료보험의 수술진료비를 낮추거나 적어도 자연분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연분만의 경우 6~10시간 이상 집중진료해야 하는데도 건당 평균 진료비가 10만9천5백원인 데 비해 30분~1시간이면 가능한 제왕절개 분만은 39만원으로 3.6배나 되기 때문에 병원 수익을 위해 수술을 선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의료사고를 우려한 방어진료로 수술을 택하는 경향이 많은만큼 자연분만의 위험성에 대한 의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법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최근 제왕절개 분만이 남용되고 있어 산모의 건강에 좋은 자연유도분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산부인과 전문의 서광태 원장(제성클리닉)은 "제왕절개수술이 태아의 사망률을 낮췄다거나 자연분만보다 위험률이 적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제왕절개 분만이 진통을 피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믿는 산모들이 많다"며 임신부교실 등 자연분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경애 기자

한국 여성 삶에 기초한 무통분만체조법 개발

삼법수행연구소 윤두병 소장, 20년간 연구 끝에 선보여 여 93.
1.29

분만시 느끼는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랑스의 라마즈가 개발한 라마즈법 체조가 소개된데 이어 한국 여성의 삶 자체에 대한 조명을 통해 남성과 함께하는 무통분만 동작이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비원앞 '3법(三法)수행연구소' 윤두병 원장(45)에 의해 개발된 무통(일명 쾌통)분만체조는 단순한 체조라기보다 산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여성을 통증에서 해방하려는 것.

“여성이 산통을 느끼는 건 몸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기쁨이어야지 통증을 느끼는 것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여성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조성이 마련돼야죠.”

이러한 전제 아래 윤 원장이 개발한 3법(三法)체조는 라마즈법과 같은 서구의 사상이 아닌 동양의 철학이 담겨 있다. 3법이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칙으로 생활을 바로 잡아 올바른 노동과 휴식을 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는데 천법(天法), 지법(地法), 인법(人法)이 있다.

▶ 다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뒷몸 일으키기를 하는 모습. 만출력(아기를 밀어내는 힘)을 길러 주는 운동이다.



천법은 말 그대로 하늘의 이치를 알고 음식물과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것으로 철학적 지식이 아닌 동작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와 자연의 이치를 배운다. 음식물 하나하나에도 의미와 먹는법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기 전부터 음식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하며 호흡을 통해서 몸놀림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

하늘의 진리가 여성들, 혹은 부부들의 삶속에 얼마만큼 투영되어 있는가를 평가해 보는 지법은 몸의 체형에 있어서의 불균형, 긴장과 이완의 불균형을 통해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안정돼 있는지 혹은

산만한지를 발견하기 위한 수련을 한다.

인법은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인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통증과 고통이 뒤따르는데 이것을 오히려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비단 체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임신한 아내를 위해 남편이 담배를 끊는 것 등도 포함된다.

“무통분만을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임신, 출산, 육아가 주는 의미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윤 씨는 이 분야에 대해 20년간을 연구하면서 가장 큰 장애가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성이라는 데서 오는 열등감이었다”고 고백했다.

“오늘날 사회가 남성중심으로 된 것은 임신을 할 수 없다는 남성들의 육체적 열등감이 힘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며 여성은 이미 몸안에 ‘자궁’이라는 우주를 갖고 있는 조물주”라고 보는 윤 씨는 “앞으로의 여성운동도 여성의 몸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한편 윤 씨는 20년간의 연구와 경험사례를 통해 <남편과 함께하는 무통자연분만법>이라는 책을 집필, 2월말이나 3월초에 출간할 예정이다.